

그녀는 선한 일을 사모합니다

짐 라이허(Jim Reiher), 멜버른 · 독일어 번역: Hans-Jörg Ronsdorf · 2021년 4월 · 2026년 10월 개정

디모데전서 3:1

이 말은 확실하도다. 누구든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아름다운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Elberfelder CSV, 독일어 성경 번역본)

이런 말이 있으니, 참된 말이라. "누구든지 교회에서 지도하는 직분을 얻으려고 힘쓰면, 크고 영예로운 일을 추구하는 것이라." (Neue Genfer Übersetzung, 독일어 성경 번역본)

이 말은 믿을 만하도다. 누구든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아름다운 일을 바라는 것이라. (Zürcher Bibel, 독일어 성경 번역본)

성경의 장 구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궁금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장 구분은 원래의 문서에는 없었습니다. 13세기에 와서야 덧붙여졌습니다. 장 구분이 본문의 일부가 되자,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는 데 한몫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장 단위로, 또는 장을 따라 성경을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한 장의 처음에서 시작해서 그 장의 끝에서 멈춥니다. 새로운 장이 어디서 시작되는지에 대한 결정들 가운데 몇몇은 꽤 이상하거나 심지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골로새서 4:1은 사실 3장에 속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지만 주의해야 할 다른 잘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장로: 디모데전서 3:1이라는 특별한 경우

많은 사람은 3:1을 무엇보다도 3장의 나머지 부분을 여는 논리적인 시작으로 봅니다. 3장에는 장로와 집사에 대한 긴 논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구절이 사실 3장의 도입이라기보다 2장의 마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의 여성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절이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장로/감독이 되도록 격려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이 2장을 마무리한다면, 바울이 믿음 안에서 훈련되고 성숙한 한 남녀 모두가 지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여성들에게 잠정적으로 몇 가지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자신의 본래 목표로 여겨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주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모두 장로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덧붙입니다.**

2장에 나오는 미성숙한 지도력의 문제

제가 왜 이렇게 제안하는지 이해하려면, 3:1 바로 앞에 무엇이 나오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2:8-15입니다. 바로 이 논란 많은 단락이 교회에서 여성의 사역과 지도력을 억누르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2:8-15는 전통적으로 여성을 교회 지도와 사역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적어도 이 단락을 이해하는 똑같이 타당한(심지어 더 나은) 다른 방법들이 있다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석들 사이의 주된 차이는, 이 단락을 모든

시대에, 세계의 모든 문화와 나라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일종의 보편적인 계명으로 보느냐, 아니면 주후 1세기 말 에베소에서 생긴 당시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보느냐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와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종들을 잘 대하십시오. 그리고 종들이여, 여러분의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하십시오”(6:1-2 참조)에 더 가까운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2:8-15는 교회 안의 어떤 부유한 여성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마 에베소 사회에서 새로 회심한 여성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제대로 가르침을 받거나 새로운 믿음 안에서 성숙하기도 전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¹ 그들은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고 권위를 가진 장로가 되고 싶어 합니다(2:12).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는 여성들이 제대로 교육받기를 원합니다(2:11). **흥미롭게도 이 구절에는 이 단락에서 유일한 명령형이 들어 있습니다. “그녀는 배워야 한다.” 다시 말해 11절은 바울의 명령에 가장 가까운 말입니다. 그는 여성들이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고집합니다.** 이것은 그의 생각과 글에서 하나의 정점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 단락의 열쇠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모든 지체가 믿음 안에서 제대로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남자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모두입니다. 그들이 제대로 훈련받고 성숙하면, 가르치고 지도하는 자리는 여자와 남자 모두에게 똑같이 열릴 것입니다.**

바울이 이 단락(디모데전서 2:8-15)에서 특별히 여성들에게 말하기 위해 두 번 사용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9절과 15절에서 흔히 “정숙함/단정함”(Sittsamkeit/Anstand)²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제 생각에는 잘못 번역된 것입니다. Elberfelder CSV는 각주에서 “또는 신중함, 또는 건전한 정신”이라고 밝힙니다). 이 단어는 원래 “머리가 맑은, 생각이 성숙하고 분별 있는, 생각이 혼란스럽지 않은”이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다른 도덕적 자질과 결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특정한 한 가지 도덕적 자질로만 이해한다면, 그 본질적인 의미를 빼앗는 셈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여성들이 교회에서 지도하는 자리를 맡기 전에 맑게 생각하고 분별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9절에서는 단정함과 옷차림의 선택에 관하여, 15절에서는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믿음에 머무는 것에 관하여).

디모데전서 3:1이 이 여성들을 향한 말이라면?

이제 3장 1절에 이릅니다. 거기에는 정확히 무엇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적어도 한 가지는 쓰여 있지 않습니다. “남자들만 장로가 되기를 사모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남자들만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여자들만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는데, 남자와 여자 모두를 가리킵니다.** NIV(New International Version)가 여기를 더 잘 번역했습니다. “여기 믿을 만한 말이 있으니, ‘감독이 되기를 열망하는 자는 고귀한 일을 바라는 것이라.’” (“Wenn jemand ...”(누구든지 ...)라고 옮긴 독일어 번역본들도 비슷합니다. “jemand”(누구)는 남자와 여자를 모두 가리킬 수 있습니다.)

몇몇 번역본은 3:2-14(남성 장로, 남성 집사, 여성 집사 또는 집사의 아내, 남성 집사) 때문에 3:1에 영어 단어 “man”(남자)을 넣었습니다. **이런 선택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여성 집사를 지지하는 논거는 있을 수 있어도 여성 장로를 위한 자리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결함 있는 논증입니다. 1절에는 “남자들”이나 “남자”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뜻하는 독립된 단어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헬라어 단어 **tis**(“누군가”)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똑같이 쓰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또는 그녀가 사모한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사모하다”라는 동사의 어간에 “그, 그녀 또는 그것”을 나타내는 어미가 붙은 것입니다. 이 동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문맥이 결정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1을 2:8-15의 마무리로 본다면, 이 구절은 교회에서 여성의 지도력을 확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여기 쓰인 단어들은 남자나 여자를 가리킬 수 있으므로, 3:1은 단순히 이런 뜻일 수 있습니다. “어떤 여성이 감독이 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그녀가 바라는 좋은 일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런 말을 전하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성들이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 곧 배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성숙하고 유능해질 때까지는 가르치거나 권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고집하기는 하지만, 여성이 장로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3장의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여성

3:2-7은 장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당시 장로들의 다수를 이루던 남성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1절이 앞의 본문을 마무리하고 2절이 바울에게 정말로 새로운 생각을 연다는 저의 추측은, 헬라어로 2절의 첫 단어들, 곧 “필요하다”(또는 “마땅하다”)로 뒷받침됩니다. 이 말은 “그러면”, “그러니”, “따라서”, “그러므로”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물론 2절은 생각의 흐름에서 앞의 내용과 이어져 있지만,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바울은 방금 여성들을 사역을 위해 훈련시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제대로 훈련받고 믿음 안에서 성숙할 때까지는 권위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장로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나쁜 야망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상기시키며 말을 마무리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잠시 멈추고, 그 순간에 중요한 다른 주제들을 다룹니다. “좋습니다 ... 그러면 지금 우리의 장로들에 관해서는 ...” 이 다음 단락(3:2-7)은 교회에 지금 있거나 곧 세워질 장로들에 관한 것입니다.

장로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또는 (어떤 이들의 번역대로) “자기 아내에게 신실해야 한다”는 표현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3:2-7을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은 분명 합리적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아마 “성별 일반화”를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시 장로들의 다수가 남자였다면, 그것은 “한 배우자에게 신실하십시오”라고 말하는 한 가지 방식일 수 있습니다. 제가 1990년대에 멜버른의 한 성경학교에서 가르치던 때가 기억납니다. 강사들은 한 사람을 빼고 모두 남자였고, 그 한 여성은 시간제로 일했습니다. 사교 행사 같은 특별한 모임이 있을 때면, 모든 직원에게 보내는 편지에 “그리고 아내들을 데려오십시오”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 표현 때문에 그 한 여성만 제외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미혼 강사도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식의 성별 일반화를 떠올리면 몸서리가 납니다. 제가 아무리 불편하게 느낀다 해도, 그런 표현이 우리에게 기혼 남성 강사들만 있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표현(“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에 대해 한 가지 더 말하겠습니다. 이런 해석 방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도 남자들에게만 해당하고 여자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셈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2-3장 다시 생각하기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보는 디모데전서 2:8-3:14의 구분, 곧

- 교회 안의 여자와 남자(2:8-15)
- 남성 장로(3:1-7)
- 남성 집사(3:8-10)
- 여성 집사(또는 집사의 아내)(3:11)
- 다시 남성 집사(3:12-14)

대신에, 서신의 생각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 합니다.

- 교회 안의 여자와 남자(2:8-3:1)
- 현재 상황: 지금의 지도자들을 성별을 전형화하여 부름(3:2-7)
- 남성 집사(3:8-10)
- 여성 집사(3:11)
- 남성 집사(3:12-14)

3:2-7을 어떻게 해석하든, 이 글의 초점은 3:1을 부각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 구절을 2:8-15의 마무리로 본다면, 이 구절은 여성들에게 이렇게 일깨워 줍니다. 어떤 여성이 장로가 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해도, 이 구절은 성 중립적입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은 누구든지 교회의 지도자 직분을 사모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 구절을 3장의 처음에 그대로 둔다 해도, 이 구절은 남녀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뒤따르는 단락 전체도 남녀 모두를 포함한다는 쪽을 지지합니다. 디모데전서 3:1을 교회에서 지도하는 일을 사모하라는 남자와 여자를 향한 초대로 보는 것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서 매우 격려가 되는 특징입니다.

여성들은 성경의 이 부분에 나오는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해석들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단락에 대한 이 대안적인 이해를 통해 우리가 이 점에서 바울과 화해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는 몇몇 사람들이 그려 온 것처럼 남성 우월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자와 남자가 모두 교회에서 섬기도록 기꺼이 허락한 사람이었습니다.

This article first appeared in the Spring 2021 issue of CBE International's Mutuality magazine (www.cbeinternational.org)

독일어 번역: Hans-Jörg Ronsdorf, 짐 라이허의 친절한 허락을 받아, 2021년 4월 20일

주

1. 이 단락에 대한 대안적 견해를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는 Jim Reiher, *Women: Leadership & the Church* (Melbourne: Acorn Press, 2006), 85–93쪽을 보십시오. 또한 Judy L. Brown, *Women Ministers According to Scripture* (Kearney: Morris Publishing, 1996), 279–312쪽, 그리고 Rebecca Merrill Groothuis, *Good News for Women: A Biblical Picture of Gender Equality* (Grand Rapids: Baker Books, 1997), 209–229쪽도 보십시오.
2. 발터 바우어(Walter Bauer)는 이 단어의 첫째이자 가장 분명한 의미로 “분별, 합리성, 정신의 건강”을 제시합니다. 둘째 의미로는 “좋은 판단력, 절제, 자제”를 제시합니다. 게르하르트 키텔(Gerhard Kittel)도

마찬가지로 설명합니다. 이런 부차적인 의미가 작용할 때에도 언제나 건전한 생각이 바탕에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9, 15에 쓰인 형태는 신약성경의 다른 한 곳, 곧 사도행전 26:25에만 나옵니다. 거기서는 언제나 “맑은 정신” 또는 “분별 있는”으로 번역됩니다. William F. Arndt, F. Wilbur Gingrich, Frederick W. Danker, Walter Bauer, William Arndt,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2n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802쪽; G. W. Bromiley, Geoffrey William Bromiley,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ed. Gerhard Kittel, Gerhard Friedrich (Grand Rapids: Eerdmans, 1964), 1097-1104쪽을 보십시오.